

제 50 호

연중 제 32 주일

(강림후 22)

1973. 11. 11

# 숲정이

발행인 김 영 일  
 인쇄인 범 석 규  
 주 간 조 성 호  
 편 집 한 상 갑

### 【강 료】

## 교부금과 주일금

김 종 택 신부



교회는 모든 신자들의 교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를 우리의 힘으로 유지하며 발전시켜 나갈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교회법은 이에대해서 모든 신자들에게 교회의 운영 및 사업과 성직자의 생활을 자기 힘 닿는대로 보조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대개 일꾼이 저 먹을것을 받는 것이 합당하니라” (마태오 10: 10; 루가 10: 7)라고 말씀 하셨고 또 바오로사도께서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성전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먹고 살며 제단을 맡아보는 사람들은 제단 제물을 나누어 가진다는 것을 여러분은 모르십니까? 이와같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도 그 일을 통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제정해 주셨습니다.” (고린토 전서 9: 13-14)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이 말씀들에서 우리는 성직자들의 생활에 대해 신자들이 책임을 져야 하고 또한 교회의 유지비를 신자들로 부터 얻도록 가르쳤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사제의 직무와 생활에 관한 교령(20)에서 “사제는 자기에게 맡겨진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하느님께 대한 봉사에 몸을 담고 있다. ...따라서 사제가 알맞는 보수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므로 사제에게 공정한 보수가 달리 지급되지 않는다면 신자들 자신이 그 책임을 져야 한다. 사제는 신자들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임으로, 그가 정당하고 알맞는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원조를 그에게 제공하는 것은 신자들의 참된 의무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에 대한 우리의 적극적인, 능동적인 참여가 없다면 교회는 유지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교회의 고마움을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 수입의 일부를 바치는 것은, 결코 자선행위가 아니라, 교회의 자녀로써의 마땅한 의무적인 행위인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자기 수입의 10분의 1을 교회에 바쳤습니다. “너희와 너희 권속이 어디서든지 가히 먹을지니, 대저 너희가 성전에서 섬기는 일에 대하여 보하는 상급이니라” (민수 18: 8).

친애하는 교형 자매 여러분, 교부금이나 주일헌금 바치는데 인색한 마음을 버리십시오. 우리가 교회에 헌금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것의 일부를 하느님께 봉헌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전생활을 봉헌하는 표시로 헌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느님으로부터 더 받으신 분은 더 바치실 의무가 있으며, 하느님께 후하게 갚는 분은 또 하느님께 더 후하게 받으실 것입니다. (2면에 계속)

### ※이주일의 미사※

□**임당송** 주여, 내 기도 어젯까지 높이 미치게 하사,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소서.

□**제1독서** (열왕 전 17: 10-16, 경향잡지 11월호 P 20)

과부가 제 밀가루로 빵을 만들어 엘리야에게 가져갔다

□**찬가송** ◎내 영혼아 야훼님 찬양하라. 당신은 언제나 신의를 지키시고, 억울한 사람들을 정의로 판단하시며, 굶주린이에게는 빵을 주시고, 사로 잡힌 이를 풀어 주시도다. ◎

□**제2독서** (히브리 9: 24-28, 성서 P. 509)  
그리스도께서는 많은 이의 죄를 씻기 위하여 한번 봉헌되셨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행복하여라, 마을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니. 알렐루야.

□**복음** (마르코 12: 38-44, 성서 P. 108)  
이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바쳤다.

### □신자들의 기도

1. 우리의 정성을 기꺼이 받아 주시는 주여, 가난한 과부의 하루 생명이 달린 등전 한낱을 높이 치하하신 당신의 뜻을 우리 모두 제대로 알아듣게 인도하시어, 우리의 인쇄했던 처지를 부끄럽게 여기는 마음을 심어 주소서. ◎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소서.

2. 평화를 사랑하시는 주여, 중동 전쟁에 하루 빨리 평화를 주시어, 유류 파동으로 인한 경제적인 파탄을 면하게 하여 주소서. ◎

3. 젊은이들을 특별히 사랑하시는 주여, 금주에 있을 대학 입학 예비고사에 응시할 수 없는 처지의 젊은이들이 실망에 빠지지 않고, 각자에게 주어진 재능을 살려 밝은 내일을 기약할 수 있는 용기를 불어 넣어 주소서 ◎

4. 주여, 우리를 당신의 도구로 쓰시어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가져오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영성체송** 야훼는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노라. 파아란 풀밭에 이 몸 누여 주시고 고이 쉬라 물터로 나를 끌어주소시도다.

### ※ 숲정이 산책 ※



이발은 제대로 합시다.

# 11월은 삶(生)과 죽음(死)을 준비하는 달

김 영 구 신부

죽음은 아무 예고도 없이 홀연히 우리를 찾아온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상황(限界狀況)이다.

죽음이 인생의 필연의 운명인 이상, 우리는 히로이즘(Heroism)의 정신을 가지고 죽음에 대해서 용감한 각오를 갖는 길 밖에 없다. 각오는 깨달음인 동시에 결의(決意)이다. 옳은 깨달음은 곧 굳은 결의를 가져온다.

철학은 죽음에 대한 연습이다. 선인들의 본보기는 어디까지나 우리를 위한 본보기에 지나지 않는다. 지혜는 스스로 주체화(主體化)되어야 한다. 주체화 된 지혜만이 정말 나의 지혜요, 나의 생활과 행동에 빛과 힘을 주는 산 지혜가 될 수 있다.

평상심시도(平常心是道)란 말이 있다. 평상시의 마음이 곧 도요, 진리라는 것이다. 진리를 특별한 곳에서 찾지 말자 매일의 평범한 생활속에서 우리는 진리를 찾아야 한다. 매일 만나는 사람, 매일 당하는 일을 성실하게 대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원리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하건, 누구를 대하건, 나의 성실을 다하는 것이 곧 인생을 가장 윤희게 사는 길이요, 그것이 곧 죽음에 대한 연습이 아닐까? 언제 어디서나 나는 하느님 앞에서 있다. 진리앞에 서 있다. 이렇게 느끼고 행동하는 것이 곧 죽는 연습을 하는 것이 아닐까? 그러한 각오가 우리에게

개 안심입명(安心立命)을 준다.

우리의 생(生)은 한번 뿐이다. 매일매일이, 순간순간이, 영원속의 오늘이요, 영원 속의 이 순간이다. 내가 <지금 여기서> 당하는 일과 만나는 사람에 대해서 언제나 나의 성실을 다 하는데 우리의 구원이 있고 우리의 안심입명이 있다. 지금 <여기를 떠나서> 우리의 생(生)은 존재할 수 없다. 우리의 생(生)은 언제나 <지금 여기>의 연속이다. <지금 여기서> 하는 일과 접(接)하는 사람에 대해서 내 성실을 다하는 것, 그것이 생(生)의 지혜요 또 죽음에 대한 준비다.

나는 여기 소크라테스의 명언을 독자에게 전한다.

<사람은 어떠한 경우라도 부정한 일을 해서는 아니된다. 또 부정을 부정으로 갚아서도 안된다.>

<사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착하게 사는 것이 중요한 문제다.>

<착하게 산다는 것과 아름답게 산다는 것과 의롭게 산다는 것은 같은 것이다.>

<자식이나 생명이나 그밖에 무슨 일이나 정의 이외에는 중요시 해서는 못쓴다.>

<나는 이성적 사고(思考)의 결과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주의(主義) 이외에는 내심(內心)의 어떤 충동에도 쫓고 싶지 않다.>

참으로 태연 자약하기가 산(山)과 같은 철인적 태도이다. 소크라테스만큼 위대한 본보기를 우리에게 보여준이가 없다. 그는 생(生)의 선수였지만 그보다도 사(死)의 선수며 지혜의 위인이다.

<진주시 교동 1가 132-4>

(1면에서 계속)

사실, 한국 가톨릭 신자는 우리의 이웃인 갈려나간 형제 자매에 대하여 부끄러운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 형제 자매들은 각 교회 하나 하나의 신자수가 우리의 각 성당 소속 신자수 보다 적을지라도, 그 교회 신자들 자신의 힘으로, 땅을 사고, 예배당을 짓고 목사님과 전도사를 모시고, 교회유지 예산도, 우리보다 엄청나게 많이 세우며, 신자의 다대수가 실질적으로 자기수입의 10분의 1을 바치고 있습니다.

현대는 옛날과 많이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즉 교회의 활동도 폭이 넓어져 많은 유지비가 필요하게 되고 교회는 그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물질적인 뒷받침이 크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면을 깊이 깨닫고 교무금과 주일 헌금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겠습니까.

(덕진 성당 주임 신부)

## \* 이 주간의 성경 \*

- 12(월) 독서 (디 도 1: 1-9, 성서 P.490)  
복음 (루 가 17: 1-6, 성서 P.176)
- 13(화) 독서 (디 도 2: 1-14, 성서 P.491)  
복음 (루 가 17: 7-10, 성서 P.177)
- 14(수) 독서 (디 도 3: 1-7, 성서 P.492)  
복음 (루 가 17: 11-19, 성서 P.177)
- 15(목) 독서 (필레몬 1: 7-20, 성서 P.494)  
복음 (루 가 17: 20-25, 성서 P.177)
- 16(금) 독서 (요한2서 1: 4-9, 성서 P.551)  
복음 (루 가 17: 26-37, 성서 P.178)
- 17(토) 독서 (요한3서 1: 5-8, 성서 P.553)  
복음 (루 가 18: 1-8, 성서 P.178)

조흥(사자표)페인트 대리점  
(집결 전문)

대 동 페인트상사 { 고급벽지  
비닐장판  
하드보드  
각종페인트

● 동문 사거리 전화 5986  
임정원 (도민고)

※ 최신형 드레스 및 신부화장 ※

## 결혼 미용실

교우 여러분께 반액 봉사

● 중앙성당 앞  
전화 6794

이현주(베레사) 올림

\* 단 교우 월부 판매 \*

동남샤프 { T V  
생 장 고  
석유스토브

● 전주극장 동편 입구

전화 8121

여요셀(윤창)

□ 양 지 쪽 □

□ 성년 특집 □

◇ 성년 특별 전대사 반포 ◇

— 교황청 내사원 교령 —



교황청 내사원은 1973년 10월 25일자로 성년 특별 전대사 조건을 아래와 같이 반포 하였다.

1. 순례 성당 장엄 전례 참여

주교좌 성당과 교구장이 지정한 다른 성당이나 경당에서 공동 전례가 장엄하게 거행될 때에 그 곳을 열심한 마음으로 순례하는 모든 교우들은 성년 특별 전대사를 받을 수 있다.

2. 가족 또는 단체별 순례 권장

가족끼리, 학생들끼리, 같은 직업이나 직무나 직장에 있는 동료들끼리, 각 신심 단체의 회원들끼리, 단체로 주교좌 성당이나 교구장이 지정한 다른 성당이나 경당의 방문하고, 거기서 얼마 동안 열심히 묵상하고 「주의 기도」, 「사도신경」, 「성모송」을 한 번씩 외우는 경우에 성년 특별 전대사를 받을 수 있다.

3. 병자에게도 특별 전대사

병이나 다른 중대한 이유 때문에 거룩한 순례 대열에 직접 참가하지 못하더라도, 그 순례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자신의 고통을 하느님께 바치면 성년 특별 전대사를 받을 수 있다.

◎이 전대사는 지역 교회의 성년이 끝나고, 로마에서 1975년에 세계 교회의 성년이 성대하게 시작되는 날까지 받을 수 있다.

◎전대사는 하루 한 번만 받을 수 있다.

□ 순례 성당 추가 지정 □

— 천주교 전주교구 교구장

교구장께서는 1973년 11월 2일차 (공문 제73-32호)로 순례 성당에서의 전례 참여와, 특히 단체별 순례를 크게 권장하며 아래와 같이 순례 성당을 추가 지정하였다.

1. 순례 성당—전주 중앙 (주교좌) 성당

2. 추가 지정한 순례 성당

이리 창인동, 군산 둔율동, 신태인, 남원, 진안 성당

3. 임시 지정한 순례 성당

교구내 모든 성당과 경당 (성년 특별 장엄 전례가 거행될 때에 한하여)

요심이 (17) 金柄斗



책은 바른 신앙을 기르는 양식이요, 매개체다. 성 바오로 서원

가톨릭 센터 프로그램

(관장 신부 박 진량, 총무 안 지은, 전화 ②3498)

12(월) 7시 반—말씀의 광장

13(화) " —성경 교실

15(목) " —지성인 교리

16(금) 2시 —여성 교실

주제 ; 가톨릭 신자와 산아제한

7시 반—레크레이션(주최: 가톨릭센터와 J.O.C)

외국 문화 교실

English Conversation—월~금요일 7시

독어—Heideros—화, 목요일 6시

Morgentau—월, 수요일 6시

\* 말씀의 광장 \*

주제 ; 화해(和解)

강사 ; 김 종택 (전주 교구 부주교)

이 동영 (전북 신문 주필)

안 지은 (가톨릭 센터 총무)

\* 호화 실내장식과 쾌적한 분위기 \*

프 랑 스 제과

\* 임 금 님 찾 집 \*

전주 전신 전화국 앞

● 제과 ②5011 찾 집 ②5013

김 원 준 (야고버)

제일 비싼 독일의 3년 연속 V.A. 번식 성적 1위인 판토호의 직자

랙스 V래토프



(임한전 애견)

문의처 : 전화 ②7692(진북동 어은골)

노루표 페인트 전복대리점 <도장공사 전문>

대한 도료 상사

● 중앙성당 정문 옆 전화 ② 4874

김 영 구(디도)

전주 시내 6개 본당 소식

1. 제4지구 (전주 지구) 성년 행사 안내
전주지구 제1차 성년행사 계획이 아래와 같이 확정되었으니 모든 교우들은 이에 적극 협조,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가) 「말씀의 광장」 (11월 12일 (월) 오후 7시 반, 가톨릭 센터).....주제 「화해」
(나) 「순회 행사」 (가을 관광 성사를 결합)

Table with 5 columns: Date, Church, Mission/Event, Pastor, and Collection/Event Details. Rows include dates from 19th to 30th of the month.

① 고백성사 (오후 7시-8시반) 제4지구 및 특수 사목 (성심, 센터, 해성) 담당 신부 전원. ② 미사 (오후 8시반)
2. 전주 시내 사도회장 회의 (16<금> 밤 7시반, 서학동 성당)

(중양) (전화 2651, 3874) 주임 신부 안복진 사도 회장 이복석

- 1. 성년 가정 방문
실시중인 가정방문에는 반드시 구역 반회장, 각 브레시디움 간부들의 동반을 바랍니다.
12(월)-태평1가 1구 (셋별), 태평2가 (하늘의 문)
13(화)-태평1가 2구 (중거자의 모후),
14(수)-중노 (하늘의 문),
13(목)-서노2구 (사도의 모후),
16(금)-경원 (평화의 모후),
17(토)-서노1구 (몽소승천, 찬송하을 정녀)
2. 설문서 제출
가정방문시에 나누어드린 설문서를 잘 읽으시고 해당란에 O표 하시어, 주일미사 때 함에 넣어 주시죠.
3. 고백성사 (본당은 11월 26일<월>)
성사표는 가정방문시 배부해 드립니다. 못받으신 분은 사무실로 오십시오. (주보 소식란 참조하십시오)
4. 부녀부 간부총회 (오늘 공식 미사후)
□교무금 수입액 2,382,250원 (목표액의 76%)
11월 15일까지 수입을 끝냅니다.
지난 주일 봉헌금 33,635원, 감사합니다.

(복자) 전화 5238 주임 신부 오기순 사도 회장 조성호

- 1. 영명축일을 맞으시는 본당 신부님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15일)
2. 신입하신 교무금 납부카드를 찾아가시오.
바빠서 신입 못하신 교형들의 교무금 책정을 사도회에서 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협조해 주시고, 착오로 인하여 책정이 너무 적게 되었다면 사도회에 말씀해 주십시오.
3. 신용조합 설립을 위한 조합원 교육
① 오늘-공식미사후, 저녁미사후, 12·13일-저녁미사후
② 교육을 받지 않으면 조합원이 될 수 없음.
4. 사제 양성 후원비 납부를 미루지 맙시다.
5. 주일 봉헌금을 정성껏 바칩시다.
□지난 주일 성미 2말 5되 (누계 213말)
지난 주일 봉헌금 11,206원, 감사합니다.

(노송동) (전화 7032) 주임 신부 합승천 사도 회장 조해형

- 1. 신용조합 월례회 (오늘 10시 미사후)
2. 애령회 정기총회 (오늘 10시 미사후)
3. 부녀부 월례회 (다음주일)
4. 가을 판공성사 (11월 23일<금>)
성사표는 20일까지 받아가지고, 판공비 준비합니다
5. 미사 시간 변경
주일-7시, 10시, 오후 6시
평일-오후 6시, 금요일(10시), 토요일(오후 5시-어린이)
6. 가정방문시 교무금 수입을 성심껏 합니다.
□지난 주일 성미 5말(누계 88말)
지난 주일 봉헌금 11,950원, 감사합니다.

(서학동) 전 화 227 주임 신부 김영일 사도 회장 최상익

- 1. 성사표 배부와 교무금 수입
19(월)...1~6반, 20(화)...7~11반, 21(수)...12~17반
고백성사는 성년행사일 (21일)에 받습니다.
2. 주일날 제병 봉헌은 공동으로 (예를은 종천처럼)
3. 성가 개창 미사 실시 (성가책 준비 바람)
4. 성년행사에 적극 참여합니다.
5. 전년도 교무금 미납액을 빨리 청산합니다.
□지난 주일 봉헌금 10,927원, 감사합니다.

(덕진) (전화 8082) 주임 신부 김종택 사도 회장 김종환

- 1. 사도회 확대회의 (오늘 공식 미사후)
2. 신용조합 월례회 (다음 주일 공식미사후)
3. 학생 브레시디움 야유회 (11월 16일<금>)
① 장소-모악산과 금산사
② 준비-교동비, 200원, 도시락
③ 집합-덕진성당에 9시 정각
□지난 주일 봉헌금 6,490원, 감사합니다.

(전동) 전 화 3222 주임 신부 범석규 사도 회장 송재진

- 1. 교무금 수입현황 1,427,100원 (197세대)
2. 오늘 애령회 특별헌금 있음
☆ 결혼을 축하합니다 ☆
12(월) 원 복철군과 이 영애양(10시)
김 홍수군과 박 중순양(11시반)
13(화) 양 덕용군과 오 옥진양(11시)
15(목) 오 공천군과 조 성순양(11시)
17(토) 안 상원군과 이 영자양(10시)
임 영식군과 이 희순양(11시)
□부녀부 성미 짤 한말, 300원, (누계 5,160원)
지난 주일 봉헌금 32,403원, 감사합니다.